

[미국, 2013년 5월]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

1. 현장 이슈

▶ 미국 내 수산물표기관련 법안 발표

수산물의 잘못된 표기법을 가려내기 위한 법안이 발표됨. 수산물 관련 추적이 조금 더 수월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이름, 잡은 지역 및 양식방법 등도 보고해야 하는 법안임. 이 법안이 통과되면 FDA 및 NOAA(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)의 수산물의 안전관련으로 제품을 거부하는 공신력이 더욱 강해질 것임

▶ 맥도날드 MSC(Marine Stewardship Council) 레이블 도입

맥도날드의 2월부터 시행한 MSC의 ecolabel 도입제도를 시작한 이후 전체 패스트 푸드 시장이 환경/지속가능성관련 레이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맥도날드의 MSC 레이블 시행은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함이며, 업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맥도날드로 인해 다른 업체들 또한 이러한 레이블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음

※ MSC ecolabel이란?

수산물이 지속가능성 원료를 사용했다는 인증표시. Marine Stewardship Council(NGO단체)에서 발행하며 MSC의 인증을 받아야 ecolabel을 사용할 수 있음
MSC는 ecolabel을 통해 지속가능성 경영을 하는 생산자 및 어부들을 인정하여 수산물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제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음



2.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

□ '13년 3월말 수산물 수입은 US 25만달러로 전년대비 6% 감소

- 미국의 전체적 수산물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은 작년 동기간대비 6% 감소
 - 넵치류의 32%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, 다른 카테고리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한국산 수산물 수입은 6% 감소함. 그 중 오징어가 58% 감소하며 연체수산물류(mollusc)가 17% 감소로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임

□ 굴

-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산 굴 수입에 대한 제재가 풀렸으나 3월의 한국산 굴의 수입은 없음. 한국산 굴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4월 이후 한국산 굴 수입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전망

□ 멸치

- 한국산 멸치의 내장제거 문제의 잠정적 해소 이후 한국산 멸치 수입은 116% 증가함. 앞으로 내장제거 문제의 해소가 지속된다면 한국산 멸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
 - * 잠정적 해소란, 일부 업체가 FDA로부터 한시적인(6월말까지)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건멸치수입에 대한 허가를 조건부로 받아 수입하고 있는 것을 말함. 임시허가 종료이후 해당업체가 임시 조건부 승인시 FDA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다면,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이나, 현실적으로 실현될지는 예측이 어려움

□ 김

- 김의 경우 미국내의 전체 수산물 수입의 감소 및 한국산 수산물 전체의 감소와 다르게 24% 증가함. 지속적인 주류시장 진출 및 새로운 제품 출시로 인해 앞으로의 한국산 김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<주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통계(누계)>

(단위 : 천달러, %)

품목	'13.1~3월	'12.1~3월	전년 대비	1위		2위		3위		한국산
			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금액
수산물 전체	3,672,829	3,847,181	-5	중국	624,337	태국	411,491	캐나다	396,313	25,337
-고등어 (030374→030354)	4,047	5,082	-20	노르웨이	1,719	대만	536	인도	395	379
-건조생선 030559	4,997	6,303	-21	한국	1,577	엘살바도르	661	캐나다	657	1,577
-멸치<6.8kg 0305634000	676	243	178	한국	495	중국	111	베트남	41	495
-굴 (030710→030711,19)	4,563	5,050	-10	캐나다	3,802	멕시코	650	홍콩	60	0
-오징어(냉동) 030749	59,944	65,602	-9	중국	34,942	태국	7,831	인도	4,808	3,151
-김(식용해조류) (1212200000 →121221(9)0000,)	25,322	20,364	24	중국	7,917	한국	3,292	캐나다	3,062	3,292

출처: FAS, USDA

3.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

□ 오징어

- 오징어는 주로 손질된 냉동 오징어 형태로 한인마켓에서 팔리고 있으며 중국산 및 동남아시아 나라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 한국산의 경우 냉동 통 오징어의 형태로 유통되고 중국산의 경우 손질되어 링 형태로 절단되어 있는 냉동 오징어가 대부분임. 현지마켓에서는 냉동 오징어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없으며 fried calamari 또는 seafood paella 등 요리재료로 포함된 제품으로 유통됨. 최근 전체 수산물의 감소세에 따라 오징어 또한 지속적 감소세임

□ 굴

- 신선굴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산 혹은 NAFTA국가산임. 신선굴 뿐 아니라 냉동굴의 경우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굴관련 안전문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감소로 굴 수입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임. (2013년 3월 기준 작년동기대비 10% 감소)

4. 동향 분석 [오징어]

□ 생산동향

- 오징어는 미국내에 캘리포니아, 알래스카지역 및 멕시코만에서 생산되고 있음
 - 미국산 오징어의 75%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
 - 미국은 거의 전량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0,000톤을 기록함.
 - 캘리포니아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생산시기가 다름. 북부지방(주로 Monterey Bay지역)의 생산은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남부지방(주로 Channel Islands지역)은 주로 10월에서 3월까지 이루어짐

□ 수입동향

○ 냉동 오징어 (cuttle fish, frozen/HS Code: 030749)

(단위: 천USD, %)

순위	수입국	2009	2010	2011	2012	증감율 (‘11/’12)
1	중국	152,155	208,164	258,305	274,088	10
2	인도	72,952	118,499	152,266	158,541	4
3	태국	22,838	22,536	25,195	27,346	9
4	대만	17,055	15,658	14,467	13,680	△5
5	아르헨티나	840	670	2,941	11,905	305
6	한국	6,269	7,651	11,297	11,093	△2
합 계		152,155	208,164	258,305	284,088	10

출처: FAS USDA

○ 신선 오징어(cuttle fish, live/HS Code: 030741)

(단위: 천USD, %)

순위	수입국	2009	2010	2011	2012	증감율 (‘11/’12)
1	중국	526	651	1,137	1,164	2
2	인도	150	49	419	553	32
3	일본	135	213	192	251	30
4	칠레	0	0	0	189	-
5	한국	263	369	324	145	△55
6	멕시코	13	57	20	120	506
합 계		2,363	3,225	2,754	3,042	10

출처: FAS USDA

- ‘12년 미국의 오징어 수입은 냉동이 US 284,088천불, 신선이 US 3,042천불로 총 287,130천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% 증가율을 보임
 - 한국산의 경우 냉동이 11,093천불로 6위, 신선이 145천불로 5위를 차지하였으나 냉동 및 신선 모두 전년대비 감소함
 - 대부분의 한국산은 한인마켓 혹은 아시안마켓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레스토랑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음

□ 소비동향

- 미국내의 소비량이 많지 않아 중국, 필리핀, 일본, 베트남 등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-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오징어 요리는 대부분 calamari로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튀기거나 파에야(paella)같은 요리의 재료로 판매되고 있음.
-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징어를 집에서 소비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에퍼타이저 형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음. (예: fried calamari)
- 미국 주류마켓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종류는 대부분 중국 혹은 태국 및 베트남 같은 동남아 산이 많은 편이지만 오징어가 들어 있는 제품은 극히 드물어 찾아보기 쉽지 않음.
 - 미국 주류 마켓보다 아시안 마켓(중국, 한국, 일본 등)에서 오징어 제품을 찾아보기가 쉬우며 대부분 냉동 오징어 형태를 소비자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여 소비하고 있음

□ 판매현황

사진	원산지	마켓	단위/가격
	중국	중국마켓	2.5lbs/\$8.99
	중국	중국마켓	1.5lbs/\$6.99
	베트남	미국마켓	12oz/\$5.48

	중국	미국마켓	10.6oz/\$4.48
	중국	한인마켓	1lb/\$3.99
	한국	한인마켓	15oz/\$6.99
	중국	한인마켓	14oz/\$3.49

□ 시사점

- 한국산 오징어는 중국산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며 한인마켓뿐 아니라 아시안 마켓에서도 중국산이 거의 모든 오징어 판매를 장악하고 있음.
 - 같은 제품으로 중국산과 경쟁하기 힘든 실정. 한인마켓 내에서도 한국산 오징어가 한두가지 제품 밖에 없음. 한인들의 한국산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산 오징어를 이용한 마켓 내 판촉 행사로 한국산 오징어의 인지도 제고 필요
 - 아시안마켓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인 오징어를 이용한 아시안 즉석요리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- 주류시장에서는 calamari로 불리고 있으며 오징어 소비가 거의 없고 즉석요리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진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. 레스토랑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에퍼타이저가 fried calamari이지만 집에서 오징어를 소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.
 - 주류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 입맛에 맞는 오징어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이 필요함

<저작권자 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